



90일 간의 위례전막걸사를 마친 결사대중들이 2월7일 상월선원 법당에서 부처님께 회향을 고하는 삼배를 올리고 있다.

인간 한계 넘나드는 90일간의 험난한 여정

천막법당 안에서 어떤 일 있었나

9명 스님들이 위례전막걸사를 회향까지 는 술한 난관과 마주해야 했다. 난방시설이 일체 없는 천막법당에서 매서운 동장군과 맞서야 하는 열악한 수행환경에다 하루 한 끼에 14시간 이상 정진해야 하는 엄격한 정규까지... ‘어떤 난락함도 구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기로 시작된 결사라지만 지난 3개월은 하루하루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고된 여정이었다. 상월선원 총도감 해일 스님을 통해 위례전막걸사 3개월의 과정을 돌아봤다. **편집자**

“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가족과 뼈와 살이 녹아버려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부처님 저희의 맹세가 헛되지 않다면, 이곳이 한국의 붓다가야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11일, 부처님께 고하는 굳은 다짐으로 위례전막걸사가 시작됐다. 수많은 대중들의 응원과 격정을 뒤로하고 상월선원 절문은 굳게 닫혔다. 자물쇠로 단단히 채워진 절문은 해제 때까지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고, 혹여 중도에 문을 박차고 나간다면 조계종에서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사 대중들은 막다른 상황으로 스스로를 내몰았다.

입재 이튿날부터 내리기 시작하던 초겨울 찬비는 12일에 이어 15일, 17일에도 이어졌다. 겨울비치고는 제법 많은 양이었다. 결사 대중들과의 유일한 소통창구

일교차 30도 넘는 열악한 환경서도 하루 한 끼에 14시간 정진 20일 넘겨 두고 극기마저 끊고 장좌불와 용맹정진으로 회향

였던 공양배식구에서 쪽지가 전해졌다. 천막법당 내부로 비가 샌다는 내용이었다. 20여일 만에 서둘러 천막법당을 지었기에 벌어진 사단이었다. 법당 내부로 통을 집어넣어 비가 새는 곳에 받치게 했고, 빗물이 고인 곳은 걸레로 닦아내도록 했다. 대형 비닐로 천막법당을 덮어 임시로 보수했지만 영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결사 대중들은 더 이상 이렇다 할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

겨울비가 그치지 본격적인 추위가 엄습해왔다. 산자락 인근 공사장 허허벌판에 위치한 탓에 상월선원 체감 온도는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찬바람이 몰아칠 때면 손발이 쪼뼛 얼어 육신거릴 정도였다. 그때까지도 천막법당 내부 상황을 가능하게 어려웠다.

11월28일부터 상월선원 천막법당과 똑같은 조건을 갖춘 체행관이 운영됐다. 일반대중들의 체험단이 하나둘씩 전해졌다. 천막법당 내부의 낮과 밤 기온은 극과 극이었다. 낮 기온은 영상 20도를 훌쩍 넘겨 땀이 흐를 정도였지만, 해가 지는 오후 5시가 넘으면 기온이 급강하했다. 새벽 무렵에는 온도계가 영하 10도를 가리켰고, 환풍이 되지 않아 지독한 습기가 지친 몸을 더욱 무겁게 할 것임이 분명했다. 소량의 음식에 하루 14시간 씩 정진해야 하는 결사 대중들이 직면한 또 다른 난관이였다.

12월7일 위례전막걸사 외호대중들이 신도들과 함께 철야정진을 열었다. 이날

천막법당에서도 쪽지가 나왔다. 외호대중들의 철야정진 소식을 접한 결사 대중들이 자신들도 철야정진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철야정진 때마다 함께 하겠다는 내용도 보내왔다. 결사 대중들의 정진의지가 새삼 놀라웠다.

동장군의 기세는 날로 거세졌다. 천막법당 내부에 설치된 간이화장실 수도가 얼어버렸다. 하루하루를 혹독한 추위와 싸움하고 있을 결사 대중들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상월선원 주지 원명 스님(봉은사 주지)이 “이러다간 자칫 큰일이 생길 수 있다”면서 방한조끼를 구해 전달했다. 그러나 결사 대중들은 한사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양배식구를 통해 방한조끼가 그대로 되돌려 나왔다.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일어서지 않겠다”는 맹세가 허언이 아니었다.

기해년이 저물고 경자년이 밝았다. 동안거 결제가 이미 반환점을 돈 상태였다. 야외에서 마주하는 추위는 뺨속을 파고들었다. 천막법당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결사 대중 가운데 두 분의 스님이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급격한 체력저하에 따른 위급한 상황이었다. 의뢰진이 서둘러 도착해 비상대기 했다. 의뢰진이 서둘러도 천막법당 내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묵언정진하는 결사 대중들의 진료는 종이에 글을 쓰는 문진 형태로 이뤄졌다. 다행히 의뢰진의 긴급처방으로 스님들은 안정을 되찾아갔다.

스님들의 정진은 계속됐다. 결사 대중들을 응원하는 외호대중들의 기도소리도 차츰 높아졌다. 동안거 해제를 20여일 앞두고 결사 대중들은 다시 극한의 정진에 돌입했다. 이번에는 하루 한 끼의 식사마저 마다하고 두부 4쪽, 방울토마토 3알 정도만을 요청했다. 외호대중들은 숙연해졌다. 동시에 엄동설한에 단식에 가까운 식사로 견뎌낼지 근심이 깊어졌다. 결국 천막법당에서 비상벨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스님 한 분이 의식을 잃었다. 응급차가 도착했다. 의뢰진은 “이 정도라면 아주 심각한 상태로 대중들을 응급실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의뢰진의 도착과 더불어 의식을 회복한 스님은 진료를 거부했다. 오히려 외호대중을 향해 “의료진을 불러 수행하는 데 방해하지 말라”는 결기를 드러냈다.

1월30일 회향을 앞두고 마지막 용맹정진을 단행했다. 2월5일까지 참선을 하며 놓지 않는 장좌불와로 결사의 마지막을 회향하겠다는 각오였다. 서울 퍼런 결사 대중의 정진지에 외호대중들도 용맹정진에 동참했다. 한동안 주춤하던 동장군이 맹위를 떨쳤다. 천막 밖은 영하 15도를 밑돌았다. 그렇게 한파와 더불어 혹독한 용맹정진의 시간이 더디게 흘러갔다. 2월5일 천막법당에 전달됐던 장군추비가 다시 되돌아 나왔다. 용맹정진을 무사히 회향했음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2월7일 오후 1시30분 굳게 잠겼던 상월선원 천막법당 문이 마침내 활짝 열렸다. 90여일간의 지난했던 상월선원 천막걸사도 그렇게 회향됐다. **권요영 기자 oyemc@beopbo.com**

“스님과 한국불교 위상 제고 위례포교당 건립불사 탄력”

위례전막걸사의 의미

산중 떠나 세간서 안거 진행

새로운 수행문화 정착에 기여

수행에 이관사관 무의미 입증

기해년 동안거를 위례 상월선원에서 마친 9명의 결사대중 스님들은 대중들의 찬탄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출가수행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가장 낮은 자세로 치열하게 정진함으로써 침체된 한국불교를 중흥시키겠다고 다짐한지 90여일 만이다.

9명 스님들은 “하루 14시간 정진” “공양은 하루 한끼” “옷은 한 벌만 허용” “양치는 허용되되 삭발과 목욕은 금지” “외부인과 접촉을 금하고 천막을 벗어나지 않는다” “묵언” “규약을 어길 시 조계종 승적에서 제외” 등 엄격한 정규와 함께 신도시가 들어설 위례에서 동안거 결사에 들어갈 것을 선언했다.

위례전막걸사 소식이 알려지자 기대와 바람의 목소리들이 나왔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법보신문을 통해 “상월선원에 대중들이 모여 두문불출하며 동안거 결제에 임하는 것은 생로병사라는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인 생사해탈의 대오견성하기 위함”이라며 “상월선원 대중들은 인연에 따라 중단의 여러 소임을 맡아 원만히 성만하고, 또 다시 수행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결제에 임하고 있으니 수행자의 본분을 다한다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과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 봉화 추사사 선원장 무어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의정 스님도 법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결사대중들을 응원하고 위례전막걸사가 한국불교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했다.

조계승인 11월11일 시작된 천막걸사는 입춘이 지난 2월7일 회향했다. 온갖 난관을 극복하며 단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9명 결사대중 모두가 문 없는 문을 뚫고 나왔다. 이번 천막걸사가 성공적으로 회향됨에 따라 불교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불교는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일들로 흥역을 치렀으며 지금도 여기저기서 잠음이 그치지 않는다. 스님들의 거듭된 승풍 실추와 비승가적 모습이 세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천막걸사를 마치고 상월선원을 나서고 있다.

리며 한국불교 이미지는 급격히 실추됐다. 이는 그동안 스님들이 스님답지 못했음을 의미했다. 이번 위례전막걸사는 불교계 안팎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연일 1000여명에 가까운 불자들이 상월선원을 찾았고 정치인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더욱이 불교의 본질적인 요소인 ‘수행’을 가지고 대중의 관심을 모은 것은 스님과 한국불교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안거 수행이 산중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세간에서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안거는 산중사찰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수행이 세상이나 일상의 삶과 동떨어질 수는 없다. 이번 천막걸사는 세상의 복판에서 대중들과 어우러지며 정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종단 내 새로운 수행문화의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천막걸사에는 오랫동안 선원에서 정진했던 수좌뿐 아니라 중무행정에 매진해왔던 스님들도 참여했다. 이번 결사가 원만히 회향됨에 따라 이관과 사관을 구분 짓는 것이 편견이자 무차별을 지향하는 불교의 이상과 어긋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천막걸사가 진행된 위례 상월선원은 신도시가 들어설 종교요지로 조계종이 2014년 신도시 포교거점 도량 건립을 발의하며 매입한 곳이다. 이번 천막걸사로 위례신도시 포교당 건립불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사) 부산영산재 신입회원모집

한국 범음법계 전통을 자랑하는 1800년도 부산어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사)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의식교육 27기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1. 의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조식예법 및 불공)	수	2시~3시30분	30명(1년)
2. 의식 전문반	• 이론 및 실기, 사물 다루는 법, 각종사찰행사전문반 • 전통예능(범음법계 : 삼신이운, 진연성, 북청계, 원강도량, 운심계, 오공양소리, 진령계, 사다라니, 육건이, 실개수공발보리, 징양성호, 관육계, 합장계, 영산작법소리 등 30여곡)			
3. 작법무반	작법무(바라, 나비) 불교무용단 환영		3시 30~	
4. 국악기반	태평소, 단소, 대금 (영산회상, 청성곡등)		5시~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950번 나길 80-42
(사)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불교문화예술대학

•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010-2314-1279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 추천(정학생 선발시 장학금 매달 25만원 지급)